현불 논단

'同事' 정신 필요한 사회



황수경
동국대 겸임 교수

한 건물주가 어려운 경제 감안해
임대료를 15~20% 감면해 '화제'
세입자 "열심히 장사할 것" 희망

중생과 동고동락하는 마음 '同事'
남을 위한 일은 곧 나를 위한 일
이기심, 결국 스스로를 불행케 해

甲들의 언행으로 시끄러운 현 시대
'同事' 의 정신을 중시하는 사회되길

현재 한국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 그런 가운데,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은 자영업자라고 한다. 자영업을 하는 음식점, 가게 등이 문을 닫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종로의 한 건물주는 3000만 원이던 보증금을 무려 1억 원으로 올려달라고 하고 임대료는 4배 가까이 인상을 요구했다고 한다. 임대인은 올릴 수 없다고 하며 옥신각신하다가 끝내 건물주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으로까지 번졌다.

흉흉해지는 인심 속에 반대의 경우도 있다. 인천의 한 건물주는 자신의 건물 세입자들에게 임대료를 1년간 15~20% 낮춰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는 언론을 통해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상생차원에서 결심을 했다. 함께 고통을 부담하고자 임대료를 내렸다"고 했다. 그 건물 세입자 12명 모두가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그 중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는 주인은 "월 100만원이 낮추어졌다"며 "10년 넘게 가게를 했지만 건물주가 자진해서 월세를 내려준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그 역시도 운영이 어려워 업종을 바꾸어야 되나 고민 중이었다. 그런데 건물주가 월 100만원이나 자진해서 감면해 준다고 하니 "고마워서라도 계속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재미있는 것은 떡볶이 가게 주인의 주변 반응이다. 그가 임대로 감면을 지인에게 말했더니 "장난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이는 건물주가 스스로 월세를 낮추어 준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됐음을 말한다.

그러나 알려지지 않을 뿐, 그런 마음을 쓰는 분들은 주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필자가 아는 한 보살님은 큰 부자는 아님에도 오래 전부터 세입자의 형편에 따라서 단 하나 뿐인 월세를 조정해주고 있다. 그 분 자신이 젊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정말 어려울 때 임대인이 월세를 낮추어주었다는 것이다. 그 고마움을 잊을 수 없어서 자기도 그렇게 한다고 한다.

형편이 어려울 때는 몇 만원이 아쉽고, 몇 십만원 이상은 큰 부담이 된다. 한번만 입장을 바꾸어보면 그 고통이 어떤지 가늠할 수 있다. 그러나 돈이 전부인 양 하는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금전적 이익을 포기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이 같은 일련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보살의 사섭법 중 '동사(同事)'가 떠올랐다. 동사는 중생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마음이다. 우리의 본성에는 본래 남의 아픔을 공감하는 연민심, 자비심이 있다. 부처님 말씀처럼 모든 존재는 연기법으로 연결되어 더불어 살고 있기에 상생할 수밖에 없는 존재며, 남을 위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 일이 된다.

모든 건 '자리이타'다. 세입자들이 잘 되면 건물주도 좋을 것이다. 월세 부담이 덜어진 분들도 좋겠지만, 아마 건물주 자신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다. 자기만 생각하는 어둡고 이기적인 마음이 들 때는 결코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다. 건물주로서는 '내 이익만 챙기는 탐심'에서 오는 고통이 덜어졌을 것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내가 손해 본다, 희생한다'는 마음 없이 이루어질 때 더 큰 공덕이 될 것이다. 어디서나 남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은 한결같이 "제 마음이 편해지고 제가 받는 것이 너무 많아요"라고 한다.

우리는 현재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타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쓰고 있을까. 금전은 물론, 이익이 된다면 무엇이든 더 가지려고, 더 차지하려고 오히려 주변을 고통스럽게 하지는 않는지 돌아보았으면 한다.

모든 것은 공해서 지나갈 뿐 영원한 자기 것은 없다. 지혜롭게 무상을 생각하고, 탐진치로 인한 과도한 집착들은 놓아버렸으면 한다.

갑들의 언행으로 시끄러운 사회다. 진심으로 남을 생각하는 보살의 자비로운 마음과 실천으로 우리 사회가 따뜻해지고, 국민 모두가 자기만 생각하는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한다.

社說

조계종 17대 중앙종회 개원에 부쳐

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가 개원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1월 9일 조계사에서 개원법회를 봉행하고 제213회 정기회를 개최했다. 정기회에서는 4선의원인 범해 스님이 만장일치로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으며, 수석부의장과 차석부의장에는 장명 스님과 주경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

또한 중앙종회는 상임분과위원장과 위원 등을 선출·배정하며 원 구성을 마쳤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사회로 따지면 '국회'와 같다. 즉, 종헌 종법을 만드는 입법기구이면서 총무원 집행부를 견제하는 행정적 장치이기도 하다.

지난 제16대 중앙종회는 역대 어느 회기와 비교해 봐도 적지 않은 입법활동을 펼쳤지만, 논의만 하다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유야무야 된 사안도 적지 않았다. 또한 굵진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제기된 종법 미비사항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점도 있다.

'입법기구'로서 제17대 중앙종회가 해야 할 일은 명증하다. 종법 미비사항들을 잘 정비하고 현재 종도들이 원하는 입법들을 이뤄야 한다. 특히 지난 회기보다 이번 중앙종회는 재선의원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활발한 입법활동을 기대하게 된다.

조계종은 지난 몇 년간 끊임없는 내외적 잡음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올해에도 잇단 악재로 총무원장이 임기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진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아직도 그 여진은 남아있다.

이럴 때일수록 중앙종회는 집행부 견제기구로 화합할 부분은 화합하고, 비판할 부분은 날선 비판을 행해 종단이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가 어느 회기보다 입법기구이자 견제기구로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장애인 전법에 사부대중 관심을…

불교계를 대표하는 장애인 전법단체 중 한 곳인 조계사 원심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조계사 원심회는 1988년 원심회의 전신인 강남 원심포교원서 10명이 수화교육을 받으며 탄생했다. 초창기 사무실과 법당 없이 옮겨 다녔지만, 1992년 조계사불교대학 지하에 공간을 마련하며 지금에까지 이르게 됐다.

원심회의 30년은 재가불자들의 장애인 포교사를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원심회를 비롯한 많은 단체에서 불교 수화 영상 제작과 교재 보급 등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아직 청각장애인 포교를 비롯한 장애인 전법에는 갈 길이 멀다.

그 무엇보다 인식 부족이 크다. 인식 부족을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스님의 참여다. 원심회에 따르면 전국불자 국가공인 수화통역사는 50명이지만 스님은 1명에 불과하다.

부처님 제자 중 천안제일로 불린 아나율 존자는 두 눈이 보이지 않은 장애인이었지만, 장애가 수행에는 아무런 걸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했다.

전법에 있어 장애의 벽이 없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법을 전하는 이들부터 마음 속에 장애가 있는 상황이다. 최근 종단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나서고 있고, 결국 이를 주도해야 할 이들이 스님들이란 점에서 스님들의 장애인 포교 참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장애인들의 아픔을 모르고서는 이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다. 스님들이 국가공인 수화통역사 자격을 비롯해 다양한 장애인 포교 역량을 갖추고 현장에서 활동할 때 불교의 사회적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다.

특별기고

추억과 함께 한 수능 격려엽서



민성화 동국대부속여고 미술교사

1학년 학생들의 첫 미술 시간, 올해도 새내기들을 맞이했다.

"다음시간에는 상반신 사진을 찍어줄 겁니다. 출력한 사진을 나눠주면 꾸며서 제출해 주세요. 2년 뒤 수능시험 전에 돌려주겠습니다."

찍기 싫다며 애교 섞인 반항을 하던 아이들은 정작 사진을 찍을 때 난리가 난다. 미술실 가득한 물감 냄새는 화장품 내음으로 바뀐다. 틴트, 마스카라 등 각양각색 화장품이 허공을 가르기도 한다. 좀 더 예쁘게 나오려는 학생들 모습이 귀여웠다.

갖가지 포즈에 다양한 각도로 열심히 촬영하건만 아이들은 계속 찍자고 했다. 1장만 더 찍자는 학생들의 아우성에 마지못해 찍고 나니 "제일 처음 것으로 뽑아주세요"란다.

우여곡절 끝에 아이들에게 출력한 사진을 나눠줬다. 학생들은 친구들과 비교하며 깔깔거리다가도 사뭇 진지한 태도로 사진을 꾸몄다. 미래의 희망과 꿈에 대해 적을까 싶었지만 실제로 쓰는 것은 'A대학, B대학 진학'이 대다수다.



동국대부속여고 전통으로 자리잡은 수능 격려엽서 전시.

각자 사진을 다 꾸미면 이제 엽서를 쓸 시간이다. "지금 여러분들의 사진은 2년 뒤에 빛을 볼 거예요. 나눠준 엽서에는 3학년 선배들에게 글을 쓰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 쓴다고 생각하고, 선배들의 힘들고 지친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담아 써 봅시다."

아이들은 사진을 꾸밀 때보다 더욱 진지한 자세로 한 자 한 자 엽서를 채워나갔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수능 D-10일. 나는 미술반 친구들, 지도교사와 함께 엽서와 사진을 붙여 코팅 작업을 했다. 올해에는 교법사 선생님이 부처님 가피가 담긴 소원 실팔찌를 지원해주셨다. 엽서사진에 소원팔찌, 그리고 미술반 화담이 마련한 초콜릿까지 동봉해 포장하니 제법 알찬 선물이 됐다.

11월 5일, 학교 운동장 옆에는 '잘해왔고, 잘하고 있고, 잘할 거예요'라고 적힌 후배들의 진심이 담긴 현수막이 걸렸다. 한쪽 공간에는 붉게 물든 단풍나무 가지에 엽서와 사진들을 걸어 전시했다. 1교시가 끝난 종소리가 울려퍼지고, 3학년들이 우루루 운동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이런 행사가 있었나"라며 자기 얼굴을 찾던 학생들은 2년 전 자신들 모습을 보고 친구들과 손사래를 쳐가며 웃었다. 아이들 뒤로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교장, 교감 선생님이 보였다. 동국대부속여고 아이들아~ 내년 수능시험장에는 가지마라! 모두 파이팅!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삽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악령,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 화제

憑依(빙의)와 귀신병(鬼神病)

은 자신의 생각 의지 마음과 상관없이 악귀에 조종 당하여 자신과 가정은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끔직한 사건으로 비화되거나 또는 집안이 망신과 수치로 황폐화되고 사회적으로는 각종 사건사고에 연관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있으면 빙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청정 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가정에 사랑과 건강함과 평화가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빙의와 귀신병의 주요 증상

* 혼자 중얼거리고 방에서 누구하고 대화 하듯이 씨부렁거린다. * 환청이 들리고 신경이 예민하여 고함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킨다. * 공황장애와 과대망상 우울증으로 자살 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 *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깨가 한 짐이 되어 무겁고 양쪽 팔과 다리와 허리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 *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하는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이 계속 되고 몸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고통스럽다. * 평상시는 순하고 순한데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바뀐다. * 무엇에 홀린 듯이 술을 연속하여 밤새도록 마시거나 또는 줄 담배를 피운다. * 몸속에 귀신이 드나드는 느낌이 들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잘 나가든 집안이 갑자기 몰락한다. * 술은 마시면 말과 방언이 튀어 나오고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평상시와 다른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 누가 집에 들어와서 음식에 약을 타서 먹지 못하게 한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한다거나 성격이 포악하고 욕을 잘하는 경우 * 돌발적인 행동과 발작을 일으키고 자꾸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거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경우. * 신내림굿을 하였는데 도리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다. * 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원상복귀를 원하고 있는 사람. * 돌아가신 조상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꿈속에 자주 나타난다. * 계속하여 악몽을 꾸거나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보인다. * 귀신하고 사랑을 한다. * 입산수도 하다 오히려 잡귀에 씌어 고통 당하고 있다. * 신병과 귀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 집안에 연속하여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가족 구성원이 아무 이유 없이 줄초상을 당한다. * 종교계통의 일을 하는데 빙의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부처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행동한다. * 가족 중에 정상적이지 못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 * 불교, 기독교 등 종교와 상관없으며 귀신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되며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여도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 와도 무방합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잡귀 마장 사탄 중엄신 조상신등 악마 잡귀의 무거운 짐을 벗어 가정의 건강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악령귀신도 불법승으로 단 한번에 제도하여 고통의 무거운 짐을 내려 놓게 하며 심신의 안녕과 평화를 찾게 합니다.

다른데서 몇번이나 했는데 안되더라 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반드시 해결되는데 믿지못하고 의심하고 망설이는 것은 또 뭐꼬!!!

귀 대한불교 자비사 예약 상담전화 010-8600-7409 (서울 강남구 대치동 2호선 선릉역 지하철 1번 출구)